

가련가



[해제]

두루마리 형태의 필사본으로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가사는 "어와세상소람들이내말삼 들어보소우리인생"로 시작되는 가사이다.

[원문]

가련가

어와세상 소람들이 내말삼 들어보소
우리인생 억만인생 천부에 애자지심
안바드니 업근마은 그룩하신 우리부주
구로지덕 제일이요 자여에 자에지성
사람마다 있근마은 천추에 불초지덕
소여외에 지잇스리
인자하신 아바 병석에 신고할제
선약한첩 못권하고 소여정성 부족하와
백약이 무호로 병세점점 위중하시니
소여호성 미진하야 평생여한 김사읍고
천지가 무광하고 일월이 암암하다
오회라 원수로다 거해연이 원수로다
허다만민 다버리고 우리아바 와병하야
다시회춘 못하시니 조물이 시기함인가
귀신도 무심하고 천지가 무도하도다
애고답답 우리아바 관후하신 기량이며
춘훈하신 성품은 일향이 통찬하고
일문이 화순기로 백연장수 바랏드니
그연금일 무삼일고
천명이 이러한가 연결종천 웬말이요
우리사남매 교훈하신 말씀 귀에쟁쟁
일가친척 교도말씀 몽중인들 이저릿가
애고애고우리 우리아바 하일하시 다시불고
원통하고 애통하다
일락서산 지는해는 내일아침 다시보고
금춘에 지는원화 명면삼월 다시피고
춘초난 연연녹이요 일월도 영책인대
한번가서 못오시는길 그럭개도 밥부시든가
무도한 영라대왕님요 우리아바 도덕군자
어는때 모시겄소
그림에 글인달이 휘치거든 오실란가
오회라 슬퍼도다 세상사람 뉘라서

슬픔이 다름이 잇스리요마는 인자하신
우리아바 만인에 탁월하신 우리아버님
호천이 망극하다 부생모욕 불면날까
쥘면 꺼질가 염여하야 업버주고 안아주어
조흔사람 되르고 일룬도덕 주야로 교훈하시와
차래로 명문귀족 성취시켜 만연자미
보실려고 하싯스나 가운이 불길하야
큰오라바는 큰집으로 출세하고 중간옴바
이십유연 소식이 돈절하야 생사분간 못하오니
이안이 불운이며 슬려함이 비할대 업그날
꽃내소식 모르는채 원한품고 가싯나요
그언니 삼강오륜 교훈 하싯지요
호회라 오호 통재라 소여더욱 불초하여
요조숙여 되르고서 여공방직 가르쳐서
은사근사 길엿으나 삼종지례를 따라
타가문에 출가하여 혼정신성 못하옵는
소여박에 없나이다
애고애고 우리 사남매에 외아들이된 우리 적은옴빠
지성호성 하심을 금이야 옥이야 하시드니
어찌잇고 무슨길이 그릇캐도 밤매신나요
와병겨우 누일에 영결종천 되단말가
오호 애쟁라 우리아바 영혼이 계시거든
홀로게신 우리모친 백연상수 비나이다
보고지고 아바님 얼골 득고지고 아바님 음성
배우고지고 아바님 교훈 아바님 언공
태산이 부족하고 하해가 미진하야
일필 난기로다 오호 애자라
태국음양 조판후에 만물이 발육해서
춘추개락 정한이치 명연봄 다시피고
만물지중 귀한사람 일생일사 정한바라
만고영웅 진시왕도 죽음길을 못막앗는데
소여 어이하리요 애통하고 술어한들
황천에 가신부모 회생할수 전허업내
울어바도 불어바도 못오실 아바님 영상 앞에서
은공의 만분지 일이라도 보답 못함이
철천지 한이되여 재배통곡 하나이다
호천망극 지심만인이 공유 하겠지요마은
우리아바 장생불사는 못할망정 고행도 안이온데

자여에 미진한 품고가심 원통하고
애통하야 오날저녁 화촉아래 두어잔의
술과단서로 아버님 영상앞에 정성을 고하니
종령는 서사흠주 하옵소서
오호 통재 애재 상향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